

땡 뚫린 하늘

얼마 전 북가주와 오레곤에서 시작된 화재로 인하여 많은 재정적인 손해를 입었다. 집을 잃은 사람들도 있었고 목숨을 잃은 사람들도 있었다. 그 기간 중에 거리는 멀었지만 내가 사는 곳에도 일주일의 넘게 나쁜 공기로 인하여 심한 어려움을 겪었다. 계속해서 일기 예보를 보면서 곧 공기가 좋아지려나? 하는 생각 가운데 있었다. 그러나 더 나빠지고 있는 공기 상태를 보면서 답답함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많은 타격을 입게 되었다. 하루 종일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 답답함이란 이루 말을 할 수 없었다.

하루는 조금 거리가 멀어도 공기가 좋은 곳에 가려고 찾아보니 아이다호 주와 유타 주까지 공기 상태가 최악이었다.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까? 더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

그러다가 8일 만에 공기가 바뀌기 시작했다. 비가 왔기 때문이고 비와 함께 바람이 반대로 불어왔기 때문이다. 갑자기 좋아진 공기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가 넘쳐났고 그 동안 단풍이 시작된 것을 보게 되었다. 소망은 있구나!

파란 하늘을 보고 해와 달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가? 저 쪽에 있는 높은 산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 마음껏 숨을 들여 마실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은혜인가? 이전에 아무것도 아닌 것같이 여기며 살았던 일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은혜였다는 것을 새롭게 깨달았다.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 모두는 얼어서 죽었든지 아니면 불에 타서 죽었을 것이다. 먹지 못해서 죽었든지 아니면 숨을 쉴 수 없어서 죽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치의 착오도 없이 인생을 살아가게 하신 것이 아닌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인가? 나를 세상에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은혜가 선물이 아니고 무엇인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신 것이 사랑이 아니고 무엇인가? 나쁜 공기가 걷힐 때에 하나님은 감사의 고백을 하게 하셨다.

사도 바울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사도행전 17장 24-25절)라고 하나님을 말한다. 과연 크시고 높으신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 번 믿으며 혹시 답답함 가운데 살아가더라도 결코 답답해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은 답답하게 생각하던 그 구름 위에 계시고 그 연기 위에 계시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연기 아래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세상의 어두움은 곧 걷힐 것이다. 하나님께 나를 부르심으로 하나님 앞으로 가든 아니면 내가 살아 있는 동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든 그 때가 되면 흐렸던 것들이 걷히고 모든 것이 확실하게 될 것을 믿는다.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답답함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 그저 고맙습니다.